



12·3 비상계엄 극복 1년… 여야 협연한 온도차

李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2일 국무회의서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국민의힘 ‘계엄 사과’ 두고 당내 의견차

지난해 온 국민을 총격에 빠뜨린 12·3 비상계엄이 국회에 의해 해제된 지 3일로 1년을 맞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폭력에 한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에 대해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살아 있는 한 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나.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주를 방문했을 때 “이번 대선은 작년 12월 3일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이라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3일에는 계엄에 맞서 국민 주권을 수호한 우리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특별 성명도

낼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특별법화는 총부리에 맞선 합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을 공식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12월 3일’을 맞는 국민의 힘의 입장은 정부 여당과는 온도차가 큰 상황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과 대선 폐쇄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계엄 사과를 두고도 당내에서 의견이 갈리며 아직 계엄 사과를 극복하지 못한 분위기다.

국민의힘 일부 초선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사과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경우 20여 명의 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원 모임 “내란 옹호자, 정계 은퇴해야” 오영훈 지사 진실 해명·사과 요구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가 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저지 1주년 성명서를 발표했다.

모임은 “12·3 계엄 당시 국민의 힘 제주도당 당협위원장 3인은 헌법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고, 극우단체와 함께 윤어계인 제주 집회에도 참여했다”며 “고광

철·김승옥·고기철 당시 당협위원장은 내란옹호, 윤석열 비호에 대해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도 “내란의 질질 규명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지역도 따로 없다”며 “오 지사는 내란의 뒷의 행적과 대응에 대해 숨김없이 공개하고, 정사에 등장하지 않은 3시간에 대

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의 혈세로 추진된 고부간 변호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지출된 변호사 비용을 제주도에 반납해야 한다”며 “자신이 있다면 자신의 이름과 비용으로 직접 당당하게 고발을 주진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특검을 향해서는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당한 오영훈 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한 성역 없이 수사를 촉구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2025년도 원포인트 워크숍 제주도 주변 마을어장 수산자원 조성 방안

일시 | 2025. 12. 4. [목요일] 15:00 ~ 18:00 장소 | 제주어류양식수협 2층 대회의실

모시는 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수온 상승 등 해양환경의 여전 변화로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자원 생산성이 악화됨과 동시에 수산물 소비 감소 및 해외 수출길이 막혀 수익성이 떨어져 마을어업인의 수산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해양수산정책 포럼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이 공동으로 마을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주도 주변 마을어장 수산자원 조성 방안’을 주제로 원포인트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통하여 현재의 실태를 진단하고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인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대표이사장 김석종 | 공동이사장 김미자·이생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대표 양홍식

Program

시간	내 용
14:30~15:00(30분)	▶ 등록
개회식 15:00~15:30(30분)	▶ 국민의례 ▶ 개회사·김석종(사)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대표이사장 ▶ 축사·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5:30~15:35(5분)	▶ 기념촬영 및 Coffee Break
주제발표 15:35~16:45(70분)	▶ 제주도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 김만철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차원관리실장 ▶ 마을어업 환경변화 대응 차원조성 - 김필연 제주해양수산연구원 수산종자연구과장
16:45~16:50(5분)	▶ Coffee Break
패널 질의토론 16:50~18:00(70분)	▶ 좌장·양홍식·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대표 ▶ 토론자·강봉조·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 홍성완·전제주해양수산연구원 연구관 ▶ 고순애·제주특별자치도 어촌계장연합회장 ▶ 정성미·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장 ▶ 좌민석·제주연구원 기반산업연구부 부장 ▶ 이병주·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장
18:00~	▶ 조별 토론

행사문의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사무국장 김상현 010-3693-911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정책연구원 강경범 010-8315-0807

주 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후 원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마라톤 예산 6배 증가 과도해”

2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회의

현기종 의원 “올해 외국인 500명 참가… 1만명 가능한가”

원화자 의원 “전기차 보급 목표 8000대, 예산은 2900대”



현기종 의원(왼쪽)·원화자 의원

까지 투입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은 지방비 106억원, 국비 296억원으로 잠정 편성돼 올해 대비 60.4% 증가했다. 제주도는 내년 전기차 8000대 보급을 목표로 세웠지만, 이 예산으로는 2900여 대만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국민의힘·성산읍)은 “목표와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가 축소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꾼집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올해 예산은 지방비 260억원과 국비 700억원을 투자했으며 신청자 급증으로 이 중 도비가 조기 바닥나 추가 재정

제주도,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부문 중대안전사고 예방을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12일까지 행정시를 포함한 241개 전 부서와 공중이용시설 431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점검을 진행한다. 각 부서와 시설 관리기관이 자체 점검을 실시한 뒤 도 안전정책과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점검 항목은 ▶ 안전보건 관리자의 업무수행 실태 ▶ 도급·용역·위탁 시 이용자 안전 확보 절차 이행 여부 ▶ 법령상 의무 교육 이수 현황 등이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관리상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중점 확인한다.

오소범기자

JDC 이사장 후보 조만간 재추천 돌입

국토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요청 예정”

이사장은 후임 임명이 지연되면서 4개월 넘게 이사장직을 이어오다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JDC가 ‘미흡(D)’ 평가를 받은 후 지난 7월 물러났다.

JDC는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며 내년도 경영평가 준비와 함께 면세점 매출 급감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일 기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과 SR 대표이사, 한국부동산원 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등에 대한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로 임기가 끝난 양영철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협회

사랑나눔 랜선바자회

백혈병·소아암 및 난치병 환아들을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 2025.12.19~12.21(3일간)

시간 AM10:00 - PM18:00

장소 이룸갤러리 (제주시 일주서로 7827-1)

바자회 수익금은 환우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전액 사용됩니다.

온라인주문 | 11.19~12.21

행사 및 문의 064-752-3300 | FAX 064-752-3303 | Email jejubh16@daum.net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협회